
일본출장 결과 보고서

- 중앙 · 지역방송의 재난 및 UHD 방송 현황 등 -

◆ 기 간 : '16. 11. 16(수) ~ 11. 19(토)

◆ 방문국 : 일본

2016. 12.

목 차

I . 출장 개요	1
-----------------	---

II . 출장 결과	2
------------------	---

1. NHK 도쿄본사 방문	2
-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inter-BEE 참관	7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3. NHK 교토방송국 방문	10
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I. 개 요

□ 출장 목적

- 일본 지상파 방송사를 방문하여 재난방송, UHD 등 방송현황을 파악하고, 2016 inter-BEE 참관을 통해 최신 방송통신 기술 및 정책동향을 수집

□ 출장기간

- '16. 11. 16(수) ~ 11. 19(토) [3박 4일] / 일본(도쿄, 교토)

□ 출장자 (3명)

- 김석진 상임위원, 이현 창조기획담당관, 김형국 사무관

□ 주요 일정

일 자	시 간	일 정
11.16.(수)	10:10-12:30 15:30-17:30	이동(인천 → 도쿄) NHK 방문 면담
11.17.(목)	10:00-17:00	Inter BEE 2016 참관
11.18.(금)	오전 15:00-17:00	이동(도쿄 → 교토) NHK교토 방문 면담
11.19.(토)	18:10-20:10	이동(오사카 → 인천)

1.

NHK본사 방문

□ 개 요

- 일 시 : '16년 11월 16일(수) 15:30 ~ 18:30
- 장 소 : NHK 본사(도쿄)
- 면담자 : 곤도 기획실장, 하시모토 특별주간 등

□ 일반현황

- 설 립 일 : 1924년
- 대표 이사 : 모미이 가쓰토
- 운영현황 : 지상파TV 2개(종합TV, 교육방송), 위성 2개(BS1, BS2), 지상파라디오 3개(FM, AM1·2)

□ 면담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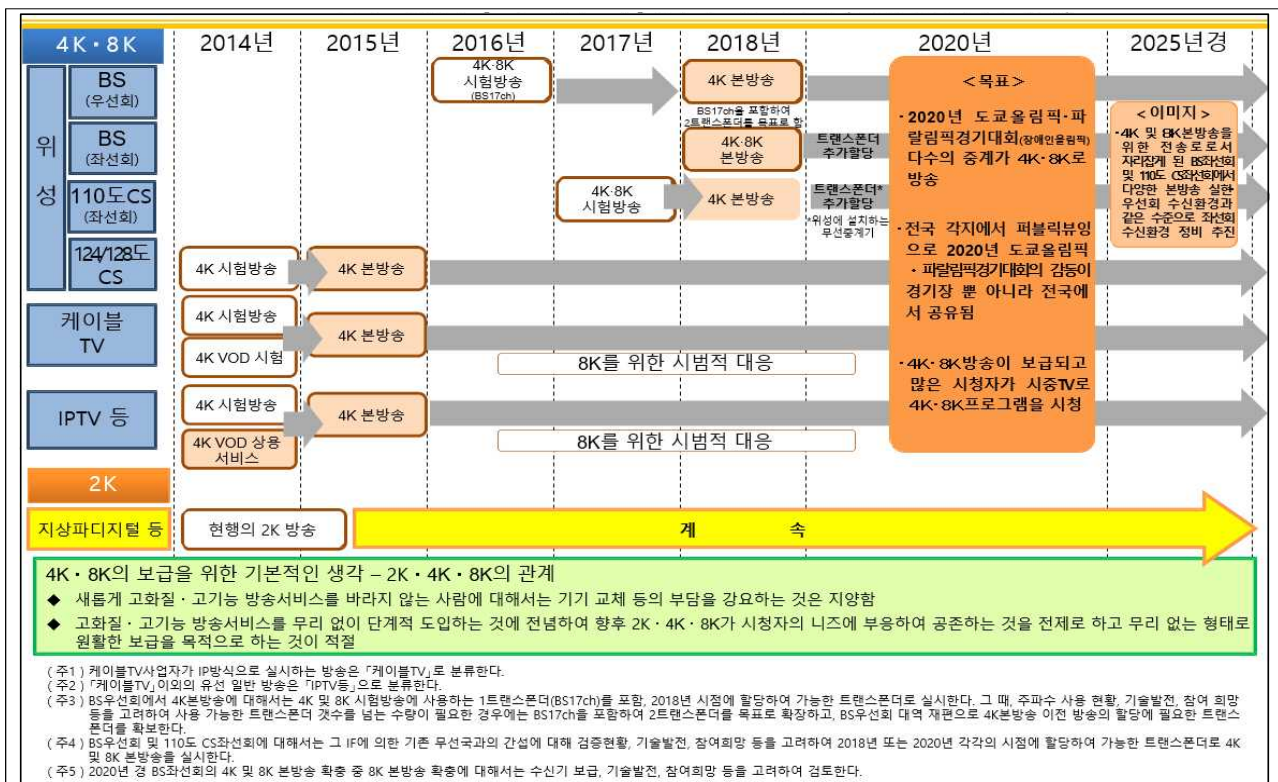
- (UHD방송) NHK방송기술연구소에 개발한 슈퍼하이비전은 현재 방송되는 HD방송(2K)보다 4배(4K) 또는 16배(8K)의 고화질 방송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위성을 통해 시험방송 실시
- UHD방송은 화소수만 증가(2백만→3,300백만 화소)하는 것이 아니라 각화소의 색상도 더욱 다양(1,024→4,096색)해지고, 초당 촬영 화면수도 2배로(60→120장) 증가. 아울러 음향도 22.2채널 가능

- 현재 위성을 통해 4K와 8K 방식의 영상물을 송출하고 있으며, UHD방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자연 다큐멘터리 위주로 편성. 2018년 본방송을 실시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

※ 1일 7시간 시험방송 중 4K방송 1시간, 8K방송 6시간 편성

- 주파수대역 확보문제로 인해 UHD 지상파방송은 아직 계획이 없음

<UHD방송 추진현황>



- o (재난방송) NHK의 재난방송체계는 다년간의 경험과 첨단장비의 발달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. 특히 1995년의 동일본대지진 발생이후에 더욱 체계화되었음

※ NHK는 재해대책기본법제2조에 의거 보도기관 중 유일하게 ‘지정 공공기관’으로 규정. 방송법제9조에 ‘NHK는 재해, 위기관리 등의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’로 명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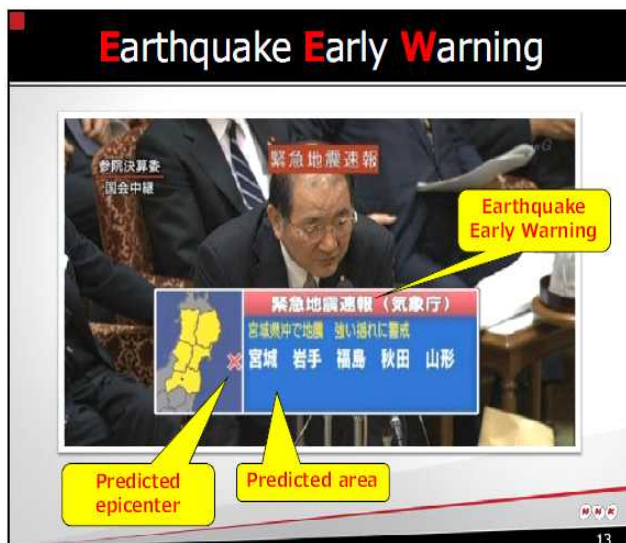
- 국민의 77%가 재난정보를 TV를 통해 얻는 만큼, NHK는 재난방지
지와 감소를 위한 재난방송 운영을 경영계획의 최우선으로 삼고
있음
- 효과적인 재난방송 운영을 위해 ① 실시간 정보전달과 조기경보
② 구체적이고 맞춤형 정보제공 ③ 지난 재해로부터 교훈을 얻는
것을 핵심사항으로 규정하였음
- 일본 기상청과 NHK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, 기상청으로부터 실
시간으로 전송받은 기상정보를 방송에 활용하고 있음
- 재난 다발지역에 방송용 헬기(총 15기)를 배치하였고, 웹카메라를
포함하여 700여개의 로봇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
- 도쿄 방송센터가 재난으로 운영이 불가할 경우 백업방송국인 오
사카방송국에서 도쿄를 대신해 재난방송 송출
- 긴급재난의 경우, TV와 라디오가 꺼져있어도 경보음과 함께 자동
으로 켜지며 재난방송이 방송됨
-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 팀(팀장 1명, 기자 5명)을 구성하여
매일 밤 12시에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
- 효과적인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화면상단에 L자 스크린을 설치하여
주요정보 전달

※ NHK의 재난방송 관련 예산(2015년 기준) : 2,896억원(KBS 4.5억원)

<NHK의 재난방송 관련 여론조사(2013년, 2,459명 대상)>

재난정보는 어디서 얻는지?(복수 선택)	
1. TV	77%
2. 라디오	71%
3. 가족, 친구	47%
4. 지자체 안내	42%
5. 재난본부 안내	35%
6. 인터넷	28%

<재난방송 화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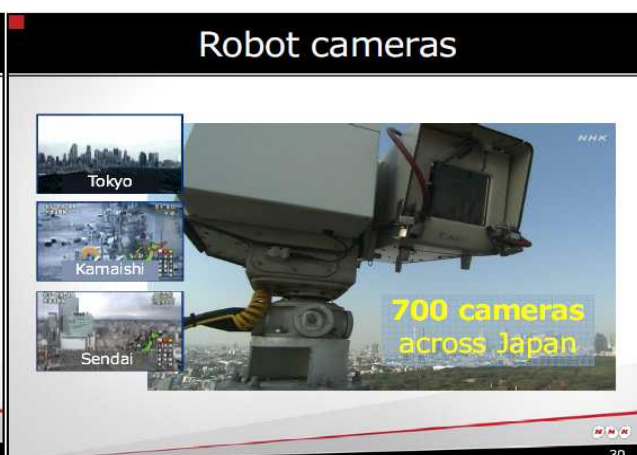
<L자 스크린>



<재난방송용 헬기>



<재난방송용 로봇카메라>



< 질답사항 >

① 공영방송 외 다른 방송사의 UHD방송 추진계획은?

⇒ 민영방송도 UHD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나, 개별사마다 추진상황이 다르고 막대한 예산에 대한 준비가 쉽지않은 상황임

② UHD방송 관련 예산상황은 어떠한지?

⇒ 운영재원의 100%를 수신료로 충당하는 NHK는 최근 몇 년간 재정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UHD방송 추진에 예산상 문제는 없음

③ 일본은 UHD방송을 위성으로 송출하는 것만 준비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 준비는 하지는 않는 것인지?

⇒ 지상파UHD 송출을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주파수대역이 필요한데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. 총무성에서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

③ 재난방송에 대해 인력양성이 중요하다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?

⇒ 매일 정규방송 종료후 재난방송을 연습하고 있음.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앵커, 카메라맨, 기자 등이 연습을 진행함. 모든 앵커는 당번을 정해 재난발생시 즉시 투입되어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음.

④ 운영재원을 100%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는데 재정상황은?

⇒ 버블경제가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하락하여 2010년에는 수신료를 8.7% 인하한바 있음. 현재 재정상태는 양호하며 수신료 인상계획은 당분간 없으며 징수대상 확대 등은 고려하고 있음

< 면담사진 >





UHD방송 시연

2

국제방송기기전(2016 inter-BEE) 참관

□ 개 요

- 일 시 : '16년 11월 17일(목)
- 장 소 : 일본 동경 Makuhari Messe(2~8관)

□ 일반현황

- 전시기간 : 2016. 11. 16 ~ 11. 18
- 참가업체 : 1,090개사(한국기업 6개사 참가/ 30,847명 참관)
- 전시내용 : 영상제작 및 방송장비, 영상디스플레이 및 조명, 전문 음향장비, ICT 및 크로스미디어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
- 컨퍼런스 : UHD방송정책, 클라우드 미디어산업 현황 등

□ 주요 내용

- (한국 참가기업) 대표 방송장비 전시회(NAB, IBC)에 비해 규모가 작고, 개최시기(연말) 때문에 전체 참가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음

- 현장촬영시 유용한 대용량 저장장치(Nexto DI), 삼각대, 소형지미집 등 촬영 보조장비 전문제작(KONOVA), 충전식 소형조명, 접이식 조명(ALADDIN) 업체 등 참가

<국내 방송장비 업체 참가 현황>

구분	기업명	주력장비
1	Nexto DI	백업 스토리지
2	Postium Korea	방송용 모니터
3	ALADDIN	조명
4	KONOVA	촬영 보조장비
5	Visual Research	자막 발생기
6	Lumos	조명

- o (전시내용) 드론 카메라, 4K 및 8K 관련 방송장비, IP 기반 무선 송출 시스템, VR 관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시
- 소니는 UHD 제작장비 및 IP 기반 제작시스템을 주로 선보였고, 아울러 자체개발한 LED광원을 활용한 세계최초 220인치 디스플레이 전시
- NHK는 8K 생방송(스모경기)과 8K 녹화방송(루브르박물관)을 전시장에서 시연
- 파나소닉은 4K 스튜디오 카메라시스템, 8K 모니터와 레코더 시연
- 드론 제작기업인 dji는 4K 드론, 장애물 회피센서 장착 드론, 퀘도설정 드론 등 신제품 시연

< 참관사진 >



3

NHK교토 방문

□ 개요

- 일 시 : '16년 11월 18일(금) 15:00 ~ 17:00
- 장 소 : NHK 교토방송국
- 면담자 : 사사키 방송부장 등

□ 일반현황

- 설립 일 : 1932년
- 운영현황 : 지상파TV 1개(종합TV), 라디오방송 1개(FM)
 - 직원수 : 94명(기자 등 제작 : 40명, 경영기획 등 행정 : 54명)

□ 면담 내용

- (재난방송) NHK본사에서 재난방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, 본사의 '비상재해 대책 핸드북'에 교토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
 - 본사에서 재난방송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나, 재난의 규모나 성격 그리고 발생지역에 따라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토방송국에서 본사의 방송과 다른 편성을 할 수 있음
 - (지역방송 운영)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평일 45분(오후 6:30~7:00, 8:45~9:00), 라디오는 평일 10분씩 3회 편성(주말은 자체편성 없음)
 - 지역뉴스만 정규편성되고 있고 다큐멘터리 등은 기획안이 본사에 채택되는 경우 지역에서 제작되며 전국으로 송출(제작인력 : 기자 12명, 카메라·편집 등 28명)
- ※ 직원선발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, 지역별 순환근무
- 지역방송에 대한 지자체나 지역기업 차원의 지원이나 협찬은 없으며 운영예산의 100%를 수신료로 충당

- UHD방송 관련사항은 대부분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, 교토 방송국은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특성을 살린 UHD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. 아울러 방송사 1층 로비에 대형화면을 설치하여 UHD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음

< 면담사진 >

